

그리고一步를더 나아가서 雜信은物質的變更이만듭니다。即物質的欲望이만듭니다。例를들자면「마호멧도」(敎回敎)의傳說를보면더욱物質的의方向이만듭니다。即天國을形容하여 飲酒도하며머리가지物質的의欲望을채웁니다。甚至於天國에가지까지 物質的의慾望을滿足시키라고외지합니다。死後에가지物質的의欲望이잇슴으로 其到底級이라할수잇습니다。사람은普通物質的의인가 精神의인가를區別함으로외 其사람의人格の高底를알수잇다합니다。即物質的의底이오 精神的은高라함은千우면지다 말하느바아아너너가!

그럼故로正信 即正信仰은精神的의요物質的의아아닌것입니다。그리하여精神에安身立命을保持하는것이 正信이라 고하겠슴니다。그리고信은常識的의요 正信은但只其常識에만아니라 以上宗教的의訓練을得한後에 비로소信에得達하는것입니다。이를따라常識的의陰陽 五行等을信함은 이는雜信이라고할수잇습니다。그뿐만아니라 雜信은倫理道德에背反된點이만듭니다。假令人肉을取하여 自己의病을治療하는等 不道德한點이만듭니다。要컨더雜信即雜信仰이라함은 迷의信仰即宇宙人生을爲하여 아모覺悟가無한信仰을云함의요 此에反하여宇宙人生에對하여覺悟한信仰을正信이라고하는것입니다。

僧侶大會에對한各觀

朝鮮佛敎僧侶大會를發起한諸君의게

金剛子

圓覺山中坐一樹 開花天地未分前이라든이 朝鮮에佛敎가들어온지近二千年만에 처음으로全國的大會合이잇었다 고한다이것이 癸亥春一月三日에京城覺皇敎堂에서舉行한「朝鮮佛敎僧侶大會」이다 곧고도찬란하든朝鮮佛敎! 朝鮮文化의源泉인佛敎! 世界學者의研究資料가되는佛敎가 날이가고해가흐를수록 衰頹하는것을만망히생각하고 幾分心만코더운외잇는 幾個僧侶의大活動으로 워리저가는朝鮮佛敎의大勢를바르삼기爲하여 佛敎를爲하는精誠下

에서僧侶大會를열게한것은『金剛子』나로서도贊禮하는바이다。그러나大體와順序를받지못한것이그렇되잇슴으로 그게외의問題를거려코 金剛一棒을들기지안어려한다。당길것은넋이약은다! 거더치우고 現在의朝鮮佛敎像態에對하여 僧侶敎徒은勿論의요 뜻의고마음잇는朝鮮사람이면 爲敎表淚와嘆息의情을누가안하라! 朝鮮佛敎의歷代傳孫의일수가안이면 現今像態를탓라고讚成을안이할줄안다。그러면저어도二千年의歷史를回복하고 五百年間의안바當하든怨恨과 不自由한現今像態를버서나 自由의宗敎! 平和의佛敎를更設하려면 그대로相當한時日의歷史와全國的豫論이充分히잇는然後에 大會를열되 大會의綱領順序와討議內容을 新聞雜誌에勿論몇번이나廣告하여야될 것이며 全國寺刹敎堂은母論의요 個人으로도有志者와 其外朝鮮佛敎의色彩들의一團體 에는 다! 通舒하여意見을들어야될것이안인가? 君들이云하는佛敎를民衆本位로한다고하면 僧侶以外一般信徒도參禮해야 事實이다줄것안인가! 그래야만大會當日부터 佛敎은僧徒本位가되는同時에 大會를發起한君等의目的을 達하는것이안임가말만 僧徒本位로한다고하고 佛敎에對한모든權利는 僧侶의게만잇다고하면 佛敎은언제나僧侶專有物이될것이이며 술은獨으로먹어면서 禁酒宣傳者와갖혼것의안인가? 또는僧規소清것혼그러한重大問題는 相當한時日을要하여研究한結果 議案을提出하여무슨성취이잇을것안인가! 僧規말이어는動機로났는지모르겠스나『金剛子』나의生覺에는現代僧侶의品行이족치못하다는 世評이만후에生覺중안다。그러면부잇! 이잘못인가하는 世上의議論를어보고 다시국치實行하는것이 問題の本意가안일가生覺한다。또는代議員에對하여도 君等의말과차지百之一을 議員數로定하였다고하면 朝鮮佛敎의敎徒數가 七어도百萬人是될것이냐 그러면萬人은되여야될것이안인가! 이러케는못된다하면 千分之一即千名은 되여야할것이안인가 七어도朝鮮佛敎大勢를運轉한다면서 七十名議員이란것은더우적은것이안인가! 또는議員資格에對하여 一切學生은除外하였다한이 그心思가那邊에在한가? 君等은佛敎를爲하여犧牲하려하는데 學生佛敎徒은佛敎를滅亡시키려고犧牲하는가? 그러學生은朝鮮佛敎徒가안이고 西洋宗! 되종인가? 그리고『金剛子』나도朝鮮佛敎를爲하여 宗을도호이며 宗을도호여보며 宗을도호여보며 研究도하고잇스나 그러한重大事를始作한다고하면 七어도人情이잇고 宗을도호케한다면 意見이라도한번들어바아되고

나 의 몸이 大使命을 가진 言論機關이니 내 등에 도한 變遷이 야 될 것이 안 만 가 그럼 에 도 不拘 하고 舊 止한 堂 門 시 뒤 스 房 公 事 로 君 等 만 살 작 한 것 이 義 理 는 次 置 하 고 人 情 上 으 로 보 터 레 도 어 더 되 었 는 아 말 이 다 그 기 나 마 舉行 하 였 다 는 所 得 이 무 엇 인 가 ? 布 教 問 題 가 엇 지 되 었 스 며 教 育 問 題 가 엇 지 되 고 僧 規 宗 清 問 題 等 그 무 엇 한 아 이 爲 된 것 이 있 는 아 말 이 다 그 중 에 도 宗 憲 과 그 빌 어 버 는 教 務 院 之 則 이란 것 이 무 엇 이 세 마 의 이 시 며 革 新 이 되 었 는 가 ? 아 무 리 생 覺 하 여 도 許 수 고 禱 가 리 이 며 萬 一 조 금 이 리 도 色 口 를 구 식 이 있 다 면 『 全 朝 鮮 僧 侶 大 會 』 可 일 흥 이 것 은 宜 哉 이 다 이 것 도 왜 何 必 朝 鮮 佛 教 僧 侶 大 會 라 하 였 는 아 말 이 다 範圍 가 터 좁 크 고 廣 大 하 게 全 朝 鮮 佛 教 徒 大 會 를 열 지 못 하 고 古 勇 善 하 고 部 分 的 인 僧 侶 만 에 限 하 야 題 目 을 限 했 는 두 가 보 든 지 小 乘 的 이 라 안 이 처 못 할 것 이 다 總 而 言 之 하 면 이 번 大 會 는 幾 個 僧 侶 의 野 阜 한 名 譽 에 止 할 아 의 發 起 가 되 고 名 譽 者 을 열 는 뜻 만 기 爲 하 야 阿 牟 祿 아 업 시 生 覺 업 시 那 禮 舍 사 리 進 行 한 것 이 라 고 보 지 안 을 수 없 다 此 를 佛 佛 에 野 阜 의 一 端 이 아 즉 남 아 서 安 靜 한 生 覺 으 로 故 然 하 우 리 을 이 려 지 하 는 마 음 은 永 々 缺 缺 바 리 고 君 等 이 참 으 로 朝 鮮 佛 教 을 사 랑 하 고 朝 鮮 佛 教 을 하 는 마 음 이 眞 情 으 로 잇 는 機 會 와 內 容 을 充 實 하 研 究 하 야 다 시 『 朝 鮮 佛 教 徒 大 會 』 를 한 번 열 어 야 되 기 이 다 那 禮 舍 사 리 大 會 綱 領 及 順 序 를 印 刷 하 야 全 國 佛 教 徒 及 寺 刹 과 佛 教 團 體 及 佛 教 學 校 等 에 配 付 하 야 小 하 야 도 一 年 間 의 生 覺 解 脫 餘 裕 을 주 어 서 機 會 는 佛 教 中 心 人 物 이 加 장 만 히 運 動 되 는 여 리 이 조 흥 을 生 覺 한다 那 禮 舍 사 리 職 員 의 資 格 及 員 數 은 寺 刹 教 堂 學 校 青 年 會 學 友 會 婦 人 會 女 子 青 年 會 等 의 團 體 代 表 와 個 人 으 로 는 男 僧 女 僧 男 女 信 徒 青 年 學 生 學 人 等 有 志 者 로 하 고 員 數 은 數 百 도 千 名 이 상 은 되 여야 할 줄 안 다 君 等 의 生 覺 에 는 千 名 하 면 每 名 下 貳 拾 圓 式 이 라 도 二 萬 圓 ? 하 는 것 이 어 리 에 업 는 들 것 이 나 那 禮 舍 사 리 佛 教 의 死 活 問 題 를 論 하 는 大 會 라 고 하 면 몇 十 名 하 는 것 은 남 이 불 세 에 새 글 한 마 이 잇 시 며 또 는 動 產 不 動 產 을 合 하 야 一 億 圓 以 上 의 資 源 을 所 有 한 朝 鮮 佛 教 가 안 인 가 ? 이 선 안 이 라 通 俗 的 으 로 한 다 하 면 個 人 私 財 도 出 席 者 가 獨 마 홀 줄 노 안 다 萬 一 이 려 케 안 이 하 고 那 禮 舍 사 리 만 든 다 고 하 면 『 金 剛 子 』 나 로 시 는 그 를 是 認 知 안 이 하 며 同 時 에 그 것 이 朝 鮮 佛 教 의 害 毒 일 줄 노 思 하 며 最 後 로 君 等 의 再 活 動 을 바 라 고 그 만 든 다 。

僧侶大會를 뜻고

夢 庭 生

荒 浪 한 朝 鮮 佛 教 近 史 上 劃 世 紀 的 善 나 設 計 라 아 나 할 수 없 다 舍 情 未 吐 音 으 로 無 엇 을 渴 望 하 야 마 지 안 을 呑 人 은 大 中 僧 齋 파 지 치 黑 夜 中 火 光 과 次 驚 喜 하 지 안 을 수 없 다 從 來 에 여 리 가 지 모 임 이 업 는 것 은 아 나 로 데 모 다 部 分 的 이 었 스 며 枝 末 的 이 었 矣 矣 量 으 로 보 든 지 質 노 보 든 지 結 果 로 보 든 지 重 且 大 한 會 合 이 라 안 을 수 없 나 議 定 事 件 을 窺 視 하 건 언 十 個 條 目 이 舉 皆 重 大 하 지 안 은 것 은 아 나 로 데 宗 憲 制 定 僧 尼 法 規 制 定 等 로 詳 하 면 吾 人 驚 喜 의 焦 點 이 다 回 顧 하 건 언 五 百 年 間 隔 世 間 的 山 中 佛 教 로 西 化 東 漸 的 世 界 思 潮 에 被 動 되 아 接 世 間 的 佛 教 로 進 展 되 러 난 過 程 에 此 所 謂 非 僧 非 俗 中 間 奇 形 的 狀 態 를 자 아 낸 것 이 現 在 朝 鮮 僧 侶 가 아 닌 가 五 百 年 間 傳 統 的 洞 窟 에 寺 刹 令 이란 奇 症 을 加 하 고 보 니 定 義 도 부 름 수 업 는 一 種 隸 屬 的 無 能 遊 民 이 되 고 만 것 이 아 닌 가 教 理 를 宣 布 할 主 人 公 이 이 리 되 고 보 니 一 般 大 衆 은 法 理 에 親 近 할 緣 緒 를 엮 지 못 하 야 今 如 是 古 如 是 로 濁 流 에 昇 浸 할 뿐 이 아 닌 가 所 謂 從 來 僧 規 라 할 만 한 寺 法 及 實 際 僧 尼 의 行 狀 을 比 較

하 야 보 면 일 다 나 矛 盾 倒 着 이 만 은 지 참 으 로 독 감 이 들 을 이 다 總 評 하 자 면 朝 鮮 佛 教 徒 無 組 織 道 靈 體 라 할 수 바 게 也 根 本 的 組 織 이 업 고 建 設 을 바 래 며 秩 序 를 云 々 合 은 萬 一 幻 覺 에 絲 號 하 는 精 神 病 者 와 合 은 것 이 다 布 教 方 法 寺 院 經 理 教 育 制 度 等 一 一 合 法 時 無 組 織 無 秩 序 的 表 現 이 다 小 不 平 大 不 平 할 것 업 시 荒 浪 散 逸 한 朝 鮮 佛 教 의 根 本 原 因 은 統 一 的 宗 憲 僧 規 가 업 는 外 남 이 라 고 볼 수 矣 矣 此 에 際 하 야 宗 憲 制 定 僧 規 制 定 을 主 題 로 한 今 般 僧 侶 大 會 로 말 하면 劃 世 紀 的 大 設 計 라 아 니 할 수 없 다 此 外 佛 教 을 信 奉 하 는 吾 人 은 自 他 를 勿 論 하 고 滿 腔 의 敬 意 를 아 니 表 할 수 없 다 國 家 에 비 하 면 憲 法 制 定 에 더 큰 會 合 이 업 을 것 이 다 教 界 將 來 를 左 右 할 만 한 重 大 問 題 인 만 큼 吾 人 은 驚 喜 와 合 기 注 目 하 지 안 을 수 업 고 將 來 直 接 實 行 처 안 으 면 안 될 條 章 인 만 큼 萬 全 을 期 待 하 는 反 對 에 憂 慮 외 지 加 하 게 된 다 全 國 을 網 羅 한 大 會 인 만 큼 勿 論 完 全 宗 憲 規 法 作 成 되 리 라 生 覺 하 오 나 法 徒 個 々 의 直 接 問 題 인 만 큼 吾 人 은 憤 慨